"야생동물들아 먹이 왔다"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광주지부 회원 등 50여명이 12일 광주시 광산구 용진산에서 폭설과 한파로 먹이 구하기가 어려운 야생동물들을 위해 고구마와 배추, 사과 등을 던져주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2015 광주U대회 시민의 힘으로 ④ 실종된 주인의식

"공공시설물 내 물건처럼 아껴야죠"

근린공원 등 시설물 파손·도난사고 빈발 보수에 혈세 낭비도

"공공시설물을 자신의 물건처럼 아껴준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광주시 북구청에서 공원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A씨는 최근 가슴을 쓸어내렸다. 지난해 말 북구 우산근린공원 공중화장실에서 불이 나 시설 일부가 훼손됐기 때문이다.

광주시 북구청이 100여 곳에 달하는 공원을 관리하고 있지만, 화장실 비품파손 등 크고 작은 공공기물 파손행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화장실 휴지걸이를 떼거나 파손하는 사례가 많아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교체한 적도 있다.

특히 겨울철에는 화장실 안에서 휴지를 태우는 사례가 많아 화재감시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광주시와 구청이 그동안 꾸준하게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한 홍보를 지속, 최근에는 공공시설물 파손사례가 줄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게 담당 공무원들의 분석이다.

실제 광주시내 화장실의 경우 화장실 사용 후 변기에 물을 내리지 않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휴지 등을 변기와 세면기에 버려 고장을 일으키는 사례가 허다하다.

최근 줄고는 있지만 공원 내 운동기구 등 시설물 파손행위도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문화시설에 대한 낙서도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예전에 비해 시민의식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일부 시민들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으로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파손된 부분이 발견될 때마다 수시로 보수하느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같은 공공시설 훼손·도난사고는 관리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야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의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게 일선 공무원들의 전언이다.

공공시설물을 파손했을 경우 공원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지만, 사실상 적발이 불가능해 시민의식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북구청의 한 공무원은 "공공시설물을 아끼는 것은 선진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것인 만큼 무엇보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끝〉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대·목포대·광주대 등록금 동결

광주·전남 10개 大 동참

등록금 동결에 동참하는 대학들이 늘고 있다.

경제난 속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여건을 감안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지난 해에 이어 2년 연속 등록금을 올리지 않기로 결정한 대학들이 증가하고 있다.

국립대인 전남대와 목포대가 12일 등록금 동결을 발표한 것을 비롯해 광주대와 서강정보대, 전남과학대 등 이날 하루에만 5개 대학이 등록금 동결에 참여해 광주·전남 지역 등록금 동결대학은 모두 10개로 늘었다. 〈표〉

이에 앞서 조선대와 호남대, 조선이공대, 동강대, 고구려대 등이 등록금 동결을 발표한 바 있다.

대학별(4년제, 전문대)로 학생 모집 규모상 차이는 있지만 자연인상분을 고려해 등록금을 3% 인상할 경우,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40억원 가량 재정이 추가 확보된다.

등록금 동결대학 (12일 현재)
전 남 대
목 포 대
조 선 대
호 남 대
광 주 대
조선이공대
서강정보대
동 강 대
고 구 려 대
전남과학대

이 같은 상황에서 등록금 동결을 선언한 대학들은 대부분 지난 해에 이어 2년 연속 참여한 탓에 재정 압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과학대학 조성수 총장은 "2년 동결에 따른 재정상 압박이 있지만 어려운 시기인 만큼 학생들의 장학금을 확대 재개편하고, 외부 장학금을 더욱 유치해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사교육 열풍' 학원 수 38년 새 50배

광주·전남은 40배 급증

광주·전남의 학원수가 지난 38년 사이 무려 4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는 50배나 늘었다.

12일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1970년 167개에 불과했던 광주·전남(당시 전남)의 학원수는 1990년 2천43개(광주 1천118개, 전남 925개), 2000년 3천715개(광주 1천958, 전남 2천117개)로 급증했고, 2008년에는 6천442개(광주 3천548개, 전남 2천894개)로 집계됐다.

광주·전남 학원수는 38년만에 38.6배나 급증한 것으로,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사교육 열풍을 반증하고 있다. 특히 1990년부터 1995년까지 5년동안 광주는 1천118곳에서 1천769곳으로, 전남은 925곳에서 1천764곳으로 늘어났고, 2000년 이후 8년동안 2천727개의 학원이 늘어나는 등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1970년 1천421개였던 학원 수가 2008년에는 무려 49.4배나 증가한 7만213개의 학원이 운영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검찰 전화 1301 통일

대검찰청은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민원이나 신고 전화번호를 지난 4일부터 1301번으로 통일했다고 12일 밝혔다.

전국 어디서든 국번 없이 1301번을 누르면 가까운 지방검찰청 민원실로 연결되고, 지역번호와 함께 1301을 누르면 해당 지역 검찰청으로 연락할 수 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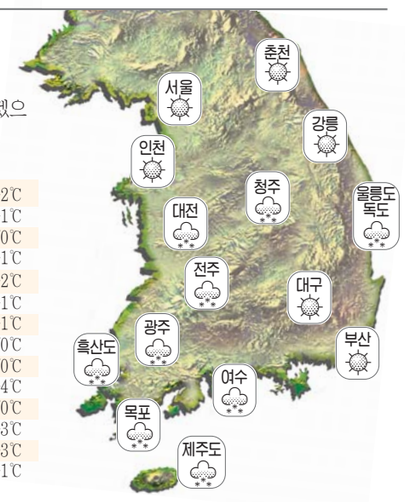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7시 41분 해짐 17시 41분 달뜸 06시 06분 달짐 15시 48분

바다 물결 높아요

대체로 흐리고 눈이 내리겠으며 바다의 물결이 높겠다.

광 주	흐리고 눈	-5/-2℃
목 포	흐리고 눈	-4/-1℃
여 수	흐리고 눈	-5/0℃
완 도	흐리고 눈	-3/-1℃
구 례	흐리고 눈	-6/-2℃
해 남	흐리고 눈	-4/-1℃
장 흥	흐리고 눈	-4/-1℃
고 흥	흐리고 눈	-6/0℃
순 천	흐리고 눈	-5/0℃
영 광	흐리고 눈	-7/-4℃
진 도	흐리고 눈	-3/0℃
전 주	흐리고 눈	-7/-3℃
남 원	흐리고 눈	-6/-3℃
흑산도	흐리고 눈	-3/-1℃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2.0~4.0m
먼바다	북서~북	3.0~4.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2.0~4.0m
먼바다	북서~북	3.0~5.0m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주의	보통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2.0~4.0m
먼바다	북서~북	3.0~4.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2.0~4.0m
먼바다	북서~북	3.0~4.0m

	밀물	썰물
목포	00:27 13:28	05:58 18:52
여수	08:28 20:13	01:38 14:29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4(목)	15(금)	16(토)	17(일)	18(월)	19(화)
날 씨						
최저/최고	-7/2	-3/5	-4/6	-4/6	-3/8	0/10

광주·전남 20㎝ 폭설

13일 광주·전남에 최대 20㎝가 넘는 많은 양의 눈이 예상된다. 또 13~14일은 올 겨울 들어 가장 기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광주를 비롯한 일부 지역은 14일까지 눈이 계속되겠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2일 밤부터 차가운 상층 공기(영하 35도)가 밀려오면서 눈구름까지 유입돼 13일 광주·전남에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이라고 12일 예보했다.

예상적설량은 남해안을 제외한 전남지역과 광주시 5~20㎝, 전남 남해안 지역 3~10㎝. 기상청은 12일 밤을 기해 여수시, 광양시, 고흥군, 흑산도와 홍도를 제외한 전남지역과 광주시에 대설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에서 0도로 바람까지 거셀 것으로 예상돼 체감온도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5일 낮부터 이번 추위가 한 풀 꺾일 것으로 내다봤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